

선(先) 경제발전, 후(後) 민주화

박정희의 리더십 12항목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불도저 정신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우리 국민에게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정회장도 박정희 대통령의 끈기와 의지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 회장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그러나 미친 사람 대접만 받다가 돌아와 박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정 회장이 말했다.

“그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녀 봤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 한국에서 무슨 배를 건조할 것이며, 게다가 몇 십만 톤 짜리를 어떻게 만들겠냐며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예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이 정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배석해 있던 김학렬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부총리, 앞으로는 정 회장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부 거절하시오. 정부 차원에서 상대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대통령은 그 한마디만 하고 나서 입을 일자로 꼭 다물고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한껏 어색해졌다. 이윽고 박 대통령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는 정 회장에게도 한대 권했다. 정 회장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뉘 앞이라고 거절하겠는가? 정 회장은 담배를 받아들곤 뽀끔뽀끔 피우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담배연기를 후우, 내뿜더니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 이것 보시오! 나, 대통령ियो. 이 나라의 대통령과 부총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데, 체념하고 포기한단 말이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소? 일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겠다고 나선 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야지, 그저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못 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뭐란 말이오?”

정 회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건 꼭 해내야만 합니다. 일본과 미국을 돌아보았는

박 대통령의 검소함은 모두가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냉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고는 선풍기와 부채로 지냈다.

데 안 되면, 이번에는 유럽으로 나가 찾아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회고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 범죄와 위업은 누가 말뚝을 박아 놓듯 고정된 진리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시대에 박정희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 머리가 아파진다. 민주냐, 독재냐, 영웅이냐, 악인이냐,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를 평가할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추상적이고 절대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려 든다면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된다. 우리는 그의 독재자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 CEO로 이 나라를 부흥시킨 그를 조명해 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박정희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마리 꿰뚫어 볼 줄 알았으며 그걸 경제 성장이라는 대어를 낚아 올리는데 활용했다. 신산했던 시절의 먹구름을 들추어내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안락한 생존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던 것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경제 발전은 단순한 물질적 부의 증대만이 아니라 다층적 차원에서의 인간적인 발전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가능성의 원동력인 것이다. 우린 박정희를 통해 바로 그것을 배우고 얻었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비전을 늘 수치로 제시하고 그것을 꼭 이루고야 말았다. 그는 ‘100년 전 조국의 근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100년 뒤떨어지게 된 근대화를 20, 30년만에 해치우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한 것까



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충청도에 사는 한 여성이 육영수 여사 앞으로 진정서를 올렸다.

내용은 자신의 동네에 와서 고시공부 하는 서울 학생을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사랑했는데, 합격한 뒤에는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이었다.

육 여사는 이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사실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법관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 사람은 법관 임용이 되지 않아 변호사로 개업했다.

10·26 사건 후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살해범 김재규의 변호를 자원했을 때, 이 변호사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검소함은 모두가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냉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고는 선풍기와 부채로 지냈다. 전력을 아낀다고 집무실에선 책상 위 전등만 켜놓기도 했다. 어둑어둑한 저녁 때 사람이 들어오면 대통령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국가경영술은 한마디로 입체적이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 정책과 전략이 일사분란하고 힘이 있었다.

청와대 직원들도 겨울엔 난방기를 잘 틀어 주지 않아 속옷을 두겹게 입고 더운물과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추위와 싸웠다. 화장실 물을 아끼기 위해 저수조에다 벽돌을 넣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니 당시 장·차관, 비서관등 고위공직자들도 자신을 위해 치부하기보다는 나라살림에 더 신경을 썼다. 어떤 국영기업체 사장은 대통령의 행동에 감명 받아 집안 식구들 모두가 일주일에 3일은 보리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진해 해군기지 내의 공관을 썼다. 대통령은 그곳에서 해군들이 업호를 해주는 등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고, 1972년 여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섬에 있는 일제시대 목조건물을 개조하여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음 해 저도에 들어가 보니 목조건물은 없어지고 새 돌집이 한 채 서 있었다. 박 대통령은 박 실장을 불러 질책했다.

“집수리를 하라고 했지 누가 새로 지으라고 했어? 너는 뭘 시키면 꼭 이렇게 하더라. 짐 내리지 마! 도로 나가자.”

옆에 있던 김정렴 비서실장이 나서서 말했다.

“오늘밤은 주무시고 가시지요. 진해 공관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머무는 사이 측근들은 마침 섬에 와 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시켜 변명하도록 했다.



“각하, 제가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습시다.”

“그래요?”

박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정 회장에게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1973년 11월 하순, 박 대통령이 광주새마을지도자대회

에 들렀다가 정읍 내장산 호텔에 서 하루를 묵게 됐다. 그러나 이 호텔 시설이 엉망이었다. 말이 호텔이지 여관만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방을 한번 둘러본 후 “사람들이 여기가 어때서 못 잔다는 거야? 이런 데 오면 아무 데서나 지는 거지 뭐. 비서실장, 나는 여기서 자고 가겠어.”

저녁은 대충 때우고 이튿날 아침도 콩나물국으로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어제 저녁은 좀 시원치 않았는데, 오늘 아침 콩나물국은 맛이 있구먼” 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의 국가경영술은 한마디로 입체적이다. 그는 국가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CEO였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 정책과 전략이 일사분란하고 힘이 있었다. 집요한 사색과 창의성을 통해서 틀을 잡고 치밀한 설계와 신속한 실천으로 실용성과 합리성을 곁들여 나갔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새마을 운동정신에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 이라고

그는 새마을운동을 '잘살기 운동' 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것은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하여 우리 모두가 잘사는 것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것은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하여 우리 모두가 잘사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근면·자조·협동', 이 새마을운동의 행동 강령을 만든 사람도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앉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김용환 당시 재무장관 회고록 "자네가 사령관 아년가"에서 보면, 박 대통령은 직·간접적인 검증은 거친 후에야 행정부에 인재를 등용했다. 정치인이나 군출신자들을 입각시킬 경우에도 일단 공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정치권 등에서 행정경험을 쌓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능력과 적성을 평가한 후, 즉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중용하곤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연구가로 잘 알려진 조갑제씨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12항목을 이렇게 꼽았다.

1. 화합형 정책 결정: 박 대통령은 듣는 사람이었다. 영터리 보고라도 끝까지 들어주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주무장관이 발안한 정책이 채택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2. 민주적 정책 결정: 박 대통령은 토론을 시켜 문제가 제기되고 찬반의견의 방향이 잡혀가면 그때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보충지시를 내렸다.

3. 생산적 회의: 박 대통령은 월간경제동향보고, 수출진흥확대회의(무역진흥회의), 청와대 국무회의, 국가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회의,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하였다. 이들 회의는 대통령이 국정을 종합적으로 규칙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기회였다.

4. 철저한 확인과 일관된 실천: 박 대통령은 계획수립에 20%, 실천과정의 확인에 80%의 시간을 썼다고 한다.

5. 국민의 각성과 참여: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조(自助)정신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인간과 조직의 정신력에 주목한 사람이다. 그는 민족성처럼 되었던 패배의식과의 싸움에 이긴 사람이다.

6. 정부는 만형, 기업은 전사(戰士): 박 대통령은 경제관료와 기업인이 이견을 보이면 대부분의 경우 기업인 편을 들어주었다. 그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채택했으나 기업 엘리트를 존중해 주었다.

7. 내각에 권한과 책임 위임: 청와대 비서실이 장관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8. 관료 엘리트 중시, 학자들은 자문역: 실천력을 중시하던 박 대통령은 집행기관장으로서 학자를 거의 쓰지 않았다. 학자들은 자문역으로만 부렸다.

9. 정치와 군대의 압력 차단: 박 대통령은 관료들이 국익과 효율성의 원칙 하에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군인들과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고 견제했다.

10. 경제발전 우선주의: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이 결국은 안보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先)경제발전, 후(後)민주화'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따른 비난에 대해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로 대응했다.

11. 시장의 한 멤버로서의 정부: 박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한 참여자라고 생각했다. '관치(官治)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CEO로 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었다.

12. 주요 전략 선택의 적중: 박 대통령이 채택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중점 투자전략, 선(先)성장-후(後)분배 전략, 과감한 외자유치 전략은 모두 성공했다.